

#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준비 현실과 정책과제

*The State of Retirement Sav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Baby Boomers*

박지승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노후소득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50대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득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50대 베이비부머들은 자녀교육, 결혼자금 등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고용의 불안정성, 취약한 연금준비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책적 과제로 50대의 공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적연금을 개발,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고용지원정책 및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50대 베이비부머를 위한 노후소득준비 지원정책은 이들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향후 초고령사회를 이끌고 갈 700만 명 예비노인층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1. 들어가는 말

전쟁 이후 출산 붐이 일던 시기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로 정의하는데,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6·25 전쟁 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 약 713만 명이 해당된다. 새해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50대 장년층 대부분이 베이비부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정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50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1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도시지역 2,000명을 대상으로 은퇴준비 정도를 진단해 본 결과, 전 연령에 걸쳐 재무준비가 취약하

고 특히 50대는 60대 이상 노인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은퇴 후 재무적 준비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최근 조사에서 은퇴를 맞이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50대 1,000명에게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38.5%만 행복하다고 답했고 과반수인 61.5%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게 현재 및 장래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되는 요인을 물었더니 자녀의 교육, 진로, 결혼 등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자신의 건강문제, 퇴직 후 일자리 순이었다. 노후 준비는 취약한데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장래의 불안감은 커지다보니 50대 장년층이 현재 행복하다

1)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2).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

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국내에 보고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50대 장년층이 노후 생활을 위해 재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보고 이를 토대로 50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우리나라 50대 장년층의 특성

우리나라 50대 장년층은 6·25 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로 극도로 궁핍한 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1960년대 초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가난의 굴레를 벗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범국가적 목표에 우선 가치를 두었다.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청춘시절을 보낸 50대는 소비보다는 절약에 익숙한 세대였고, 유신정권 하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저항적 정서를 내재화시켜야 했던 세대였다<sup>2)</sup>.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고,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경험해야 했고, 2008년에 다시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으며 조기 퇴직, 실직, 생업기반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도시지역에 사는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다.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고졸 이상 학력자가 약 70%인 반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중졸 이상 학력이 29%에 불과하다<sup>3)</sup>. 베이비부머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자아실현 욕구가 높고, 시간 절약에 민감하며, 자신의 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쓰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sup>4)</sup>. 베이비부머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동시에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마지막 세대이며,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세대이다<sup>5)</sup>.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막내인 1963년생이 올해 50세가 되면서 50대 베이비부머 전체가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자녀교육비와 결혼자금 등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소진하거나 퇴직 후 창업을 위해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은 준비하지 않아 은퇴빈곤층의 위기에 내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 3. 50대의 노후소득준비 현실

### 1) 노후준비 기대와 현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도시지역에 거주하

2) 정성호(2010). **중년의 사회학**, 살림.

3)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정책적 대응: 민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초청강연회 발표자료.

4) 박지승(2012a). **한국인은 어떤 여가활동을 하는가?: 40~5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5) 정경희 외(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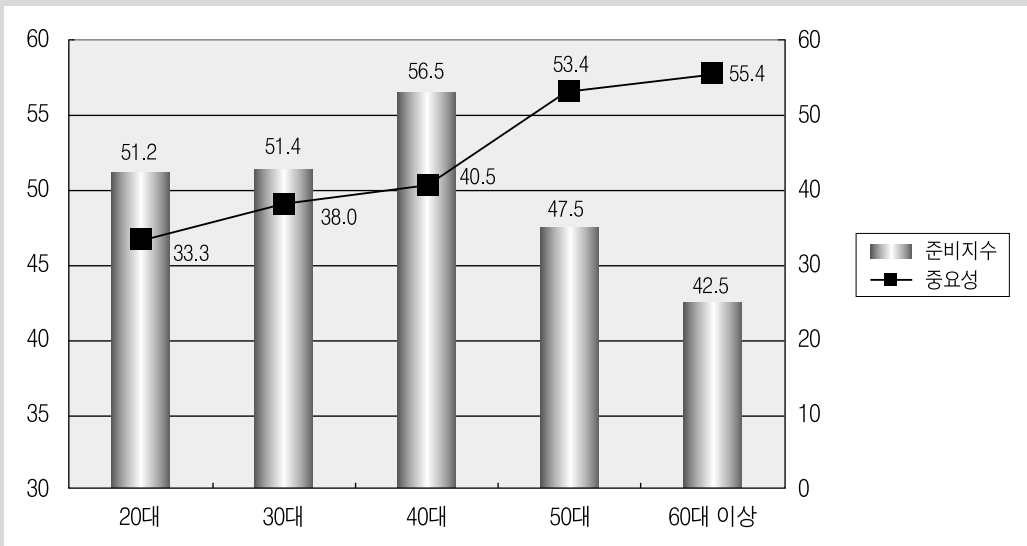
는 2,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경제생활 준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후 경제생활 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높았지만 막상 노후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정도는 40대를 정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장년층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3.4%가 은퇴 후 경제생활 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실제 준비 정도는 100점 만점에 47.5점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그림 1).

같은 조사에서 은퇴자 218명을 대상으로 은퇴 이전까지 모은 자금이 은퇴 후 생활 자금으로 충분하지 물어봤는데, ‘충분하다’는 응답이 41.4%, ‘부족하다’ 또는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8.6%로 부족하게 느끼는 은퇴자들의 비율이 높았다(그림 2).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

에 여유가 없었다는 의견이 6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생활비 때문에 여력이 없었다는 의견이 25.6%로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답변도 5%를 차지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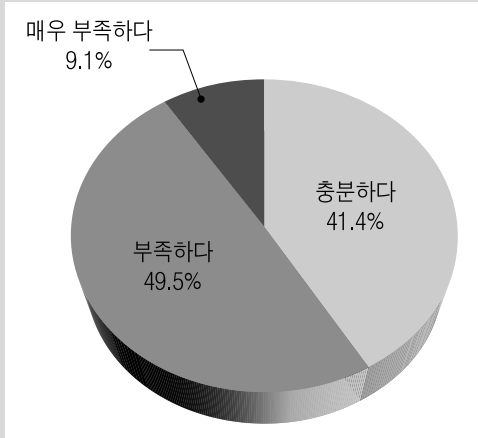
50대에게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은 노후소득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생활자금은 충분하지 않은데 이 시기에 각종 경조사비와 건강비용을 포함해 자녀 대학교육비 및 결혼자금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그림 4), 50대 장년층은 현재 또는 장래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되는 요소로 자녀부양 및 교육, 진로, 결혼을 꼽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건강문제, 퇴직 후 일자리 순이었다. 노후에 불안한 요소는 많지만 현실적으

그림 1. 연령대별 은퇴 후 경제생활 수준의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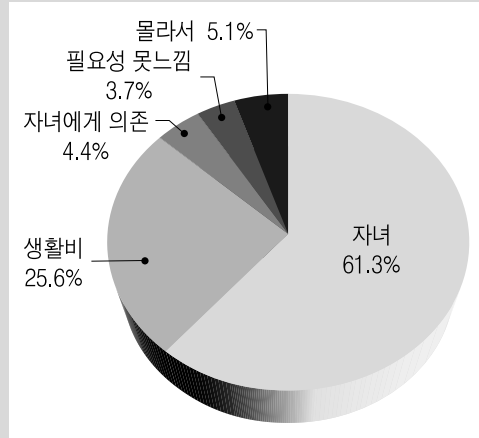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2),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

그림 2. 은퇴자금 충분여부에 대한 인식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2).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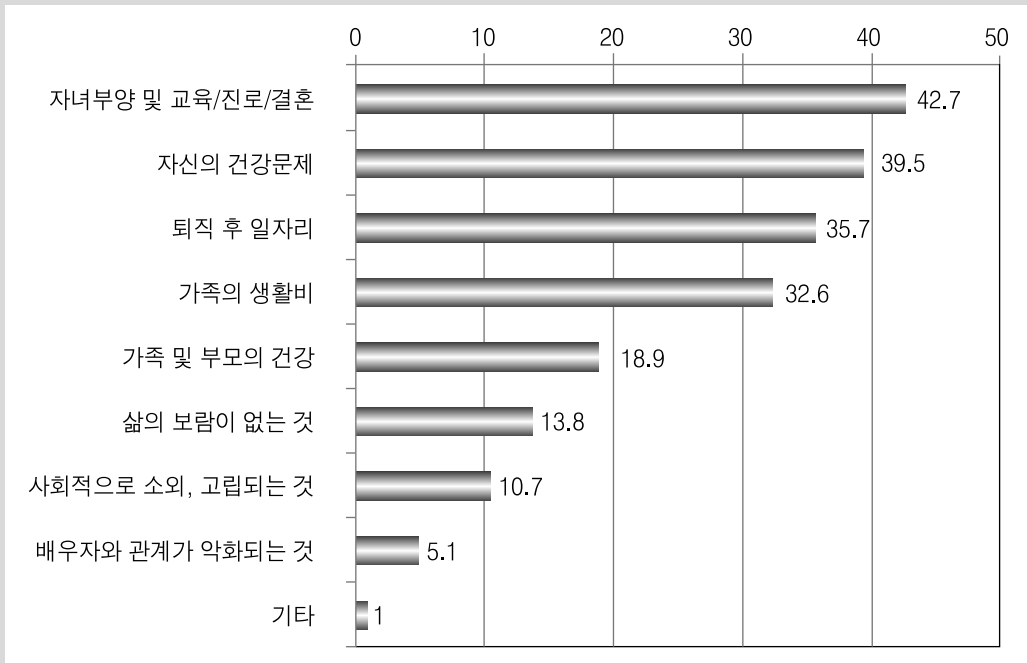
그림 3. 부족한 은퇴자금의 이유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2).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

그림 4. 50대가 현재 또는 장래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들

(단위: %)



자료: 박지승(2012b). 우리나라 50대의 퇴직 후 일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1, 2순위 응답내용 분석. 현직 근로자 500명, 퇴직경력자 500명 대상.

로 노후의 안정된 소득수준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2) 고용의 불안정성

베이비부머들 중 경제활동 인구는 2010년 현재 549만 명으로 75.8%를 차지하지만, 이 중 약 26%인 189만 명만 정규직 급여생활자이고 나머지는 자영업·고용주(25.8%), 일용직·임시직(25.5%)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6)</sup>.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임금근로자 중에서 아직 이직 경험이 없는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지 설문조사한 결과, 91%가 계속 또는 평생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완전히 은퇴하고 싶다는 의견은 5.5%에 불과할 정도로 50대 장년층의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sup>7)</sup>. 그러나 50대를 위한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자리를 찾더라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현재 우

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약 28%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2008년 기준)의 2배 수준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은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등 생존비율이 25% 이하로 매우 낮은 편이다<sup>8)</sup>. 이렇게 50대의 경제활동 욕구는 높지만 고용환경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도 취약한 현실이다.

## 3) 연금준비의 불충분성

노후소득을 위한 3대 보장체제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20~50대는 국민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 가입률은 높은 편이지만, 전 연령층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준비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50대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 가입률은 93.6%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각각 30.4%, 42.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연금을 수령

표 1. 연령별 연금 가입현황(N=3,700)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국민/기타공적연금	92.5	89.7	92.2	92.2	93.6
퇴직연금	37.8	37.0	45.2	39.1	30.4
개인연금	44.6	32.4	41.9	49.7	42.9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9). KB 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준비실태. KB연구보고서, 25~59세 비은퇴자 남녀 3,700명에 대한 온라인/일대일면접조사 결과임(2012년 6~7월 실시).

6) 삼성경제연구소(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7) 박지승(2012b). 우리나라 50대의 퇴직 후 일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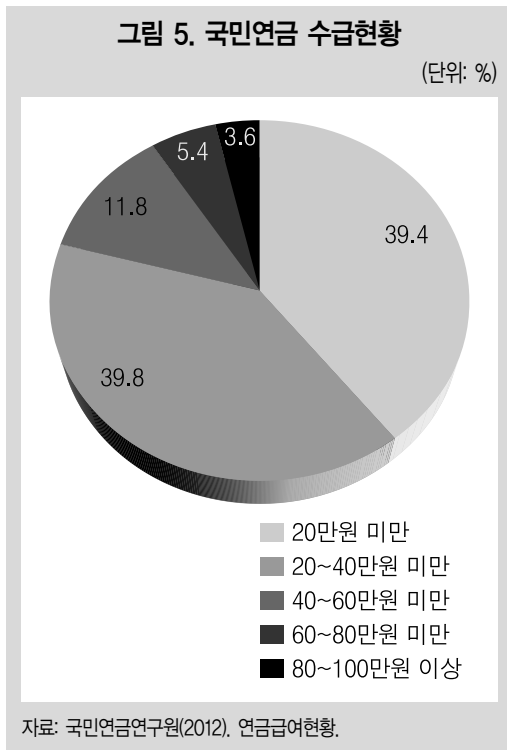
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KB 경영정보 리포트 2012-12호.

하더라도 2011년 현재 55~79세 연금수령자는 전체의 45.8%에 불과하고 25만원 미만 수령자가 전체의 67%를 차지해 연금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평균 연금수령액이 2011년 기준 월 82만원이다. 하지만 2012년 8월 현재 국민연금수급자 전체 현황을 보면 20만원 미만 39.4%, 20~40만원 미만 39.8%로 평균 40만원 미만이 79.2%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5). 노후소득 부족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

우 연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이 중단된다. 그나마 노후자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마저 조기 수령하게 되면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은 부족하고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금을 보더라도 현재 소득대체율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의 60~8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연금 수준은 평균 소득의 45~55% 수준으로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연금을 기반으로 한 노후소득 준비가 매우 취약해 보인다(표 2).



**표 2. 3대 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전체연금
현재 수준	25~35	12.5	7.5	45~55
목표 수준	30	30	10~20	70~80

자료: 보험연구원(2009). 2009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

주택연금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래 주택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2009년 주택연금활성화 정책으로 가입률이 크게 증가해 2011년 말 총 7,286가구가 가입했다<sup>10)</sup>. 주택연금은 주거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주택자산을 유동화하여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

9)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등 주택연금의 장기지속성이 불확실하고, 정부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부담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50대인 베이비부머들은 60세 전까지 당장 소비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60세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3억원 은 되어야 월 72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표 3).

#### 4) 노후생활에 드는 비용

은퇴 전후 가계소비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은퇴 전 총 소비는 월 평균 130만원, 은퇴 후 총 소비는 월 평균 138만원 정도였고, 이 중에서 식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표 4). 은퇴 전에는 교육비가 많이 들었는데 은퇴 후에는 보건의료비가 많이 들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은퇴 후에는 자녀 교육비 및 대학자금으로 인한 소비가 줄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건강 관리를 위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윤원아(2012)는 장노년층이 실제 생활에 얼마 정도 소비하고 있는지 조사한 국내 자료들을 근거로 50세 이상 자가 소유의 은퇴자 가구가 은퇴 후에 자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연간소득을 추정했다(표 5). 건강상태에 따라, 만성질환 수에 따라, 장기요양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독신인지 부부가구인지 여부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 부부는 연간 2,200만원, 장기요양 상황이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연간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살펴 본 50대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득준비 상태로는 노후생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노후대책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베이비부머들은 흔히 “끼 세대”라고 불리는 데 부모 및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느끼지만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 세대이다<sup>11)</sup>.

표 3. 연령별, 담보주택 가격별 주택연금 월 지급액

(단위: 원)

구분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1억원	240,020	286,820	346,520	426,370	536,490
3억원	720,070	860,450	1,039,550	1,279,120	1,609,470
6억원	1,440,150	1,720,890	2,079,110	2,558,230	3,218,940
9억원	2,160,220	2,581,340	3,105,000	3,305,210	3,620,04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11) 정경희(2012). 은퇴자(베이비 부머)의 특성과 정책적 대응: 민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강연회 자료.

**표 4. 소비비목별 은퇴 전후 월 평균소비변화**

(단위: 천원, N=325)

소비비목	은퇴 전 평균소비(2005년)	은퇴 후 평균소비(2009년)	t-통계치
총 소비	1290.1	1379.1	-1.463
식비	354.4	331.7	2.368*
주거광열비	193.8	179.2	1.156
피복비	58.3	64.6	-0.641
교통통신비	222.0	217.8	0.346
문화생활비	50.3	66.0	-1.554
보건의료비	103.7	187.2	-2.411*
가구집기비	25.8	29.2	-0.450
교육비	128.0	47.9	4.392***

자료: 전상민(201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자료. \*p<.05, \*\*\*p<.001.

**표 5. 50대 이상 가구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한가?**

구분	노후에 필요한 비용 (연간비용)		
	건강상태에 따라 (나쁨~ 좋음)	1인 가구	1,040~1,170만원
	부부 가구	2,130~2,330만원	
만성질환 수가 평균 3개 이상인 경우	1인 가구	1,235만원	
	부부 가구	2,430만원	
장기요양의 상황 (요양원 입소 안함)	1인 가구	1,690만원	
	부부 가구	2,960만원	
장기요양의 상황 (등급판정과 요양원 입소의 경우)	1인 가구	1,030~1,140만원	의료비+요양시설 거주비
	부부 가구	2,200~2,310만원	1인 생활비+의료비+요양시설 거주비

자료: 윤원아(2012). 노후소득 안정에 관한 표준지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국민연금공단에서 베이비부머 482명에게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본인(61.4%)과 배우자(25.3%)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그림 6). 50대 베이비부머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스스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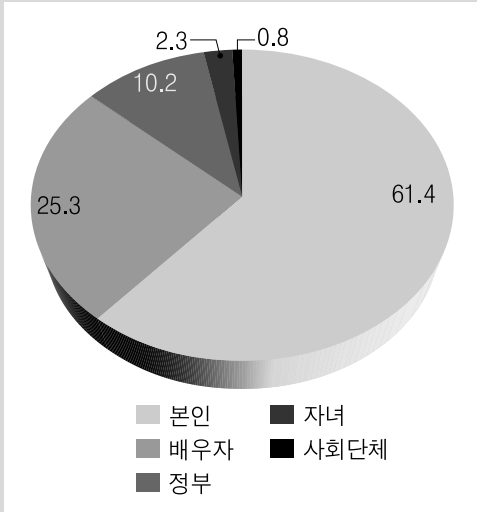
## 4. 정책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50대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준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이를 보완할 수



그림 6. 노후준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200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원자료.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적연금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갖추었지만 실제로 3층 연금체계를 모두 갖춘 이들은 많지 않다. 50대 퇴직자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퇴직연금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50대 베이비부머들은 이제 정년이 임박했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노후준비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50대 초중반에 퇴직해서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1~65세 시점까지 약 10년 정도의 소득공백기가 찾아오는

데 이를 은퇴 크레바스(crevasse)<sup>12)</sup>라고 표현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소득공백기에 자녀 대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 또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부양에 쓰게 되고, 퇴직 후 창업자금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을 위한 노후자금을 별도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제약을 지닌 베이비부머 및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유연한 형태의 사적연금 상품들을 개발하여 국민연금과 기존의 사적연금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50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크레바스를 채워 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지원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퇴직 후 일자리가 필요한 50대가 각 지역별 주민센터 또는 공공기관을 방문해 일자리 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서비스들을 쉽게 접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퇴직 전, 후의 장년층이 재취업, 전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OECD에서 발표한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은퇴연령<sup>13)</sup>은 남성 71.4세, 여성 69.9세로 멕시코(남성 71.5세, 여성 70.1세)와 더

12)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갈라져서 생기는 깊고 좁은 틈을 의미함.

13)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나이를 의미함.

불어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52.6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sup>14)</sup>. 퇴직은 빨리 하는데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높아 장년층을 위한 노후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50대 남성의 빠른 퇴직으로 인한 소득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50대 여성가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서울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여성가구주로 50대 여성 취업자가 10년 전에 비해 30%나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연령이 54세였다<sup>15)</sup>. 하지만 50대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임시,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노후 독

신기를 보내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0대 여성 장년층을 위한 노후소득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0대 베이비부머를 위한 노후소득준비 지원정책은 이들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향후 초고령사회를 이끌고 갈 700만 명 예비노인층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소한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중노년기에 여가, 취미생활 등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 50대를 위한 노후소득준비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한 노후준비 대책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14) 서울시복지재단(2012). 노인능력 활용방안 연구.

15)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